



홍성만 미카엘 신부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담당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느껴질 때, 나의 혀는 풀리고 나의 귀는 열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된 귀먹은 반병어리를 우리에게 대면시켜 줍니다. 한순간에 귀가 열린 반병어리는 무엇을 들었을까? 경탄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풀린 혀로 터트린 일성은 무엇이었을까? 분명 감사와 찬미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 경탄과 감사와 찬미는 갓 태어난 아기의 고고한 울음소리가 아니었을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 반병어리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나의 사랑과 우정을, 나의 인격을 건넨다는 뜻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이웃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따로 불러내십니다. 당신 손가락을 그의 귓속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는 다음 “에페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는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의 귀와 혀에 닿을 때 즉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느껴질 때 나의 혀는 풀리고 나의 귀는 열립니다. 진정으로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배제된 채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만큼 귀먹은 반병어리가 됩니다. ‘저’ 자신도 여기에서 결코 제외되지 않습니다. 혹시 나는 요사이 귀먹은 반병어리는 아닐까? 어떠한 이유로든지 마음이 닫혀 이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를 건네지 못한다면, 이는 분명 치유되어야 할 반병어리입니다. 그만큼 몸도 무겁고 마음도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치유되어야 할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고 섬세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반병어리가 된 나의 상태가 왜인지를 말입니다. 그 이유가 나의 자존심 때문인지, 이기심에 찬 상대방의 마음 때문인지를 말입니다. 솔직하고도 담백하게 그 이유를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끝없이 흐르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에 마음을 다해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귀담아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료 깊게 말을 건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 오늘 제1독서는 들려줍니다.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군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느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 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에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 하는 이는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냇물이 흐르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자주 귀먹은 반병어리가 되곤 합니다.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알고 그때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당신 손가락을 나의 귓속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침을 발라 나의 혀에 대십니다. 평화와 자유가 나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염리동성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1가길 28

동대문시장(총)성당 염리동성당 일원동성당



염리동성당은 1994년 2월 아현동성당과 공덕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92년 공덕동성당의 이전을 위해 마련해 둔 대지에 염리동성당의 설립이 결정되어 1993년 본당 설립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1994년 10월 착공 미사를 봉헌하였고, 1995년 본격적인 성전 건립을 위한 노력을 해오던 가운데 보강 공사와 재정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마침내 2000년 11월 성전이 완공되어 다음 해 6월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2007년에는 공덕동 관할 구역 아파트가 염리동 관할구역으로 이관되었고, 현재는 성전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곧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홍보국 차장